

참회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먼지에 덮혀있는 본성을 찾게 하는 이동호 선생은 편안한 분입니다. 이틀간의 프로그램을 마친 한 분의 참가기를 신습니다. 무엇보다도 막힘없이 참가자의 의문에 답해주는 이동호 선생의 설명이 프로그램 진행과정 중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그는 또 한주일을 더 머물며 본성의 순수함에 폭 젖어있는 듯합니다. (편집자 주)

참나가 드러나는 순간

이상훈 (부산시임당 한의원 원장)

제가 경험했던 일들을 있는 그대로 여기에 적어올립니다.

글을 쓰기에 앞서서 간단히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입니다. 건물주인과 터무니없는 보증금 인상 문제로, 성업 중이던 한의원을 이전 개원하려던 참에 3개월 정도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싶었고, 지친 육체와 정신을 잠시나마 쉬게 하고 싶었고, 아내와 아기를 갖기 전 배낭여행으로 추억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은 명상에 투자하고, 한달 정도는 배낭여행을, 나머지 시간은 새롭게 자리 잡을 한의원 자리를 알아보고 꾸미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진료를 앞두고 부산의 명상모임(만등)에 계신 선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만등은 결혼 전 1년 동안 제가 몸담았던 명상모임입니다.

제가 여행 전 명상에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고 싶었던 이유는, 산다는 것에 대한 목적의식의 결여 때문이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며, 좋아하는 재즈를 듣고, 가끔 외식을 하며, 앞으로 무엇을 하면 더 잘살 수 있을까 등등의 생각들 앞에는 항상 나라고 착각한 허상만 존재했습니다. 진정한 나란 무엇이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아내와의 결혼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결혼 초보다는 잦아진 말다툼과 조금씩 식어가는 사랑. 무덤덤해지는 생활 속에 계속되는 환자 진료로 피로해져가는 정신과 육체. 현대를 사는 어느 누구라도 다 겪는 일이지만, 누구도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대하는 내 마음이 시간이 흐를수록 기계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꿈꾸던 한의사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과 더불어 점점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일상의 모든 것이 실타래처럼 엉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선배! 제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어요. 환자를 진료하는 것도 갈수록 짜증이 나고, 모든 것이 너무 힘들어요.”

선배는 순일 이동호 선생님의 참나 수련에 참가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4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발하기 이틀 전 저는 이동호 선생님과 함께 계신 김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참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만등(부산의 명상모임)에서 전생체험을 하며 참회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일주일의 시간으로 참회가 덜 끝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참회는 무슨… 하루도 안 걸리겠구만.

목요일

아침 8시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동안의 피로가 몰려와서인지 4시간 동안 거의 잠에 취해 있었고, 의정부행 국철에 앉아서도 1시간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의정부역에 도착하자 환한 웃음으로 김 선생님이 저를 맞아 주셨습니다. 아침을 굶었고 점심도 서울역에 내려 햄버거 하나로 때운 터라 그 유명하던 의정부 부대찌개를 맛보고 싶었습니다. 의정부 부대찌개의 맛은 부산의 그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훨씬 담백하고, 구수한 맛에 부산 것처럼 느끼한 맛이 없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순일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신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양평까지는 1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순일 선생님을 자신이 만나본 여러 선생님들 중 가장 훌륭하신 분이라 했고, 인상은 옆집 아저씨처럼 지극히 평범하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모양을 한 예쁜 집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차는 세워졌습니다.

“이 선생님은 정말 행운이세요.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이 집을 구했거든요. 선생님이 처음으로 이 집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순일 선생님 댁 바로 옆에 집을 하나 얻으셨고, 텅- 비어 있는 그 집에서 저는 일주일 동안 참나 수련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방을 내리고 옆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선생님 댁 앞 조그만 정원에 순일 선생님이 이름 붙인 ‘순일 카페’가 있었습니다. 나무통을 엮어서 만든 테이블에 의자가 3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순일 선생님이 해맑은 웃음을 하고 카페로 나오셨습니다. 정말 이웃집 아저씨처럼 편한 인상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안죠!”

선생님은 포용으로 저를 반겼습니다.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과 함께 저의 공부는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에게서 저녁식사 전까지 참나, 삼매, 명상에 대한 이야기들과 선생님의 수련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훈 : “어릴 적 잠깐씩 멍하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있었던 적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순 일 : “그때 마음이 어떠하던가요?”

이상훈 : “너무도 평화롭고 편안하며 이대로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릴 적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언젠가 시간이 가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 상태를 지속하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순 일 : “항상 늘 그런 상태이면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수련은 가족들에 대한 참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우리가 겪었던 갈등들이 우리의 의식에 쌓여있고, 그것들을 참회로 녹임으로써 참나를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서는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아내의 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편한 자세로 앉아서 어머니가 저에게 잘해주신 것부터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첫날 저녁 틈틈이 휴식을 취하며 세 시간 가량 앉아 있으며, 어머니가 저에게 잘해주신 것을 떠올렸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졸음이 몰려와 결국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금요일

오전 중에 계속 어머니가 잘해주신 것에 대해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머니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뭔가에 가려져 잘떠오르지 않던 생각들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련 후 전과 가장 달라진 건 생각들이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평소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들이 얽혀있어 잠시도 편안히 머리를 비울 수 없었던거데요. 점심식사 후 김 선생님과 산책을 했습니다. 강가로 나가니, 영화에서나 본 그런 예쁘고 화려한 집들도 있었습니다. 전원의 평화로움에 흠뻑 젖은 채로 다시 수련의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 대한 참회를 계속했습니다.

이러 저리 하루가 흘렀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것 같았습니다. 가슴 깊이 어머니를 떠올렸고, 어머니가 잘해주신 것과, 내가 어머니에게 잘못된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밤 12시쯤 되었을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에 뭔가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왔습니다. 통증은 한동안 계속되었고, 괴로웠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어머니에 대한 장면들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눈물

이 주르르 흘렸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흐느꼈습니다. 텅- 빈 방에 울음소리가 울렸습니다. 베란다로 이불을 끌고 나가 또 울었습니다.

아무것도 소용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어떠한 것들도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사랑은 너무 컸고, 내가 지금껏 살아오며 어머니를 가슴 아프게 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외국의 화려한 경치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즐겨보셨습니다.

“내 주제에 저런 델 어째 가보겠노. 텔레비로라도 봐야지.”

그 말에 머릿속에서 메아리쳤고, 눈물은 계속 흘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6시. 나도 모르게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맑았구나! 전에 없는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굳었던 얼굴에선 웃음이 넘쳐 나왔고, 내 눈앞의 모든 것이 투명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맑았고, 가슴에는 충만함이 넘쳐흘렀습니다.

오후부터는 아버지께 대한 참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이상했습니다. 아침 산책 후 잠을 다시 자고 일어나 샤워를 했는데, 조금 으실 으실 추웠습니다. 얼굴에 열이 오르는 것 같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어도 추웠습니다. 보일러를 올렸습니다. 작은 방에서 수련하고 계시는 김 선생님께 대한 미움이 일었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왜 보일러를 안 틀어주는 거지? 내가 이렇게 이른 시간에 보일러 올린다고 속으로 뭐라는 거 아냐?’ 몸은 추웠고, 머리 속에는 미움의 생각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식사 후 순일 선생님은 다른 명상단체의 방법과 자신의 방법을 비교하셨습니다.

‘이 분도 역시...’

순간 몸이 갑자기 가쁜해졌습니다. 내가 다른 단체를 칭찬하자 내 눈에는 선생님이 조금 흥분한 듯이 보였고, 그 생각이 떠오르자 이후 선생님의 말씀은 전부 자기 방어적인 말처럼 들렸고, 선생님께 대한 믿음이 사라지자 온몸을 휘감았던

오한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예고였습니다. 내가 어머니에 대한 참회로, 예고는 자신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받자 몸살로 나를 위협했고, 내가 선생님을 의심하는 마음을 갖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 이상 이런 수련은 할 필요가 없다고 나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믿든, 안 믿든 그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맛보았던 마음의 평화를 생각해보십시오. 그것은 거짓이었는지, 참이었는지 스스로 알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 대한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오늘과 같은 평화를 맛보고 싶었습니다. 만일 그런 평화로움으로 나머지 생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머니 때와는 다르게 명치 밑이 갑갑해졌습니다. 가슴속에서 슬픔이 밀려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많이 편안했습니다. 잠을 청했습니다.

일요일

아버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풀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으로 넘어갑니다. 동생과의 갈등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나에게 잘해 준 것과, 내가 동생에게 잘못된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점심식사 후 동생에 대해 계속 진행하는데 갑자기 온몸에 극심한 통증이 일어났습니다. 피부를 누가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었습니다. 극심한 감기몸살 때의 통증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통증이 1시간 가량 계속되고, 마침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이 시원해지고, 어머니 때보다 더 큰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이상훈: “아버지에 대해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순 일: “그러셔야 할꺼예요.”

역시 예고의 장난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조금 올라온 걸 했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를 정도였습니다. 김 선생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으로도 모자랄 거라고 했었는데...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은 생각보다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물려설 수 없었습니다. 생각 즉, 예고라는 것이 어떻게 나를 얼리고 달래고 협박하고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계속 용기를 내어 수련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이 떠오르자 또 다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앉아 있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생각만 떠올리면 피부를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 밀려오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이를 악물었는지 어금니가 아파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잘못이 떠오르자 용서받을 수 없다는 두려움이 수련을 가로막았습니다. 불효자식이라는 생각이 들자 더 큰 고통과 함께 더 이상의 참회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녁도 굶은 채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정신병자처럼 되뇌었습니다. 6시간을 자리에 앉아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 .

저녁 9시쯤 순일 선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부처님께도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선생님은 누구나 그런 마음을 정도만 다를 뿐,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자식들은 누구나 부모를 모시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 마음에는 잘못된 것은 없다고. 다만 그 마음이 참나의 마음은 아니라고.

“그건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보다 못한 존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배가 고파왔습니다. 미숫가루와 빵으로 허기를 조금 달렸습니다. 선생님이 가시고 다시 아버지에 대한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밤새 괴로웠습니다. 어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자면서

도 참회를 계속 하고 싶었습니다. 잠자리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잠이 들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9시에 눈이 떠진 것입니다.

점심을 먹고도 수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수련은 여전히 괴로웠습니다. 온몸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은 여전했고, 그 고통으로 온몸의 기운이 점점 빠져갔습니다. 앉아 있기도 힘들만큼 무릎의 통증이 심해졌고, 얼마나 인상을 썼던지 이마의 근육이 온통 부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아빠하고 나-하고 놀던 꽃밭에…”

귓가에 갑자기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노래는 그치지 않았고, 내 울음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잘못된 일들이 많았는지 머릿속에서 많은 장면들이 스쳐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지고, 편안해졌습니다.

순일 카페로 갔습니다.

“여기 오신 후로 가장 편안한 얼굴이십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얼굴에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슴에서는 뭔지 모르지만 꼭 차 오르는 무엇인가가 그치지 않고 흘러 넘쳤습니다.

“전화를 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하신 참회로 끝내지 마시고 전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부산에 내려 가서서 직접 가족들 앞에 가서 참회를 하십시오.”

오후에는 휴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습니다. 동생은 과거의 일들은 전혀 가슴에 담아두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나에게 도움을 받아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남편에게 좀 더 잘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같이 우셨습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는 것처럼 하셨지만, 저는 어머니의 목소리만 들어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도 동생과 같았습니다. 지나간 일들은 가슴에 담아 두고 있지 않다고, 대신 동생에게 좀 더 따뜻한 오빠가 되어주라고.

부산의 선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선배는 오히려

자신이 더 기쁘다고 했습니다. 행복한 목소리를 들으니 너무 기분이 좋으며,

이제 가족 중에는 단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지나간 세 사람을 합친 것보다 더 힘들 것 같았습니다. 바로 아내였습니다. 자리에 앉자 아내가 나에게 잘해준 것들이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내에게 잘못된 것들도 끊이지 않고 떠올랐습니다. 다시 온몸에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고통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온 방을 기어다녔습니다. 머리를 벽에 쥐어박았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온몸이 찢겨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울음이 올라오는데 터지지 않았습니다. 숨만이라도 제대로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통은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과거처럼 살기는 싫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배를 잡고 앞으로 꼬구라졌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기를 몇 시간. 이제는 뱃가죽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죽는 게 더 편할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고통이 점점 작아지더니 극심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거실 벽에 웅크리고 정신없이 양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구석구석 정신없이 눈알을 휘둘렀습니다.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미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없이 좌우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무서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화요일

자면서도 계속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불을 켜놓고 잠을 잤습니다. 몸은 피로해질 대로 피로해져 거의 기운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빠는 내가 여전히 예쁘고, 귀엽고, 착하고, 사랑스러워?”

머릿속에서 같은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머릿속에서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되풀이했습니다. 이 고통의 끝은 과연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아내가 나에게 잘해준 것과, 내가 아내에게 잘못된 것과 함께 질문은 역시 계속되었습니다. “미안한데, 진정으로 니가 예쁘고, 귀엽고, 착하고, 사랑스럽지 않아...” 순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끊이지 않았습니

다. 어디일까?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이 고통이 이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한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참나로 거듭날 수 있다면 죽을 때까지라도 하고 말겠다.

점심식사 후 순일 선생님과 잠깐 이야기를 가졌습니다. 선생님께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데 답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대답이든 마음속 에다 답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아내가 나에게 잘해준 것과, 내가 아내에게 잘못된 것과 함께 질문은 역시 계속되었습니다.

“미안한데, 진정으로 니가 예쁘고, 귀엽고, 착하고, 사랑스럽지 않아...”

순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끊이지 않았습니

다. 아내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오빠는 내가 여전히 예쁘고, 귀엽고, 착하고, 사랑스러워?”

“응. 난 니가 진정으로 여전히 이쁘고, 귀엽고, 착하고, 사랑스러워.”

내 마음속의 에고의 모습을 인정하자, 참나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일 선생님과 김 선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해냈어요.” 순일 선생님이 다가와 안아주셨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내 옆에서 힘을 주시던 김 선생님도 다가와 안아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과 김 선생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태어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했던 말

이지만, 정말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참나의 목소리가 가슴속에서 입가로 전해졌습니다. “사랑해!”

저녁에 오리고기 파티를 했습니다. 순일 선생님은 술이 조금 되신 것 같았습니다. “가서 계속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전처럼은 아니지만 여전히 경계는 올 겁니다. 가서 안 하시면 다시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순일 선생님은 20번도 넘게 이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다들 잠자리에 들고,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의 예고는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면 이제 되었다. 그만해라.’ 평화롭지만 거기엔 거짓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에 대한 참회를 계속했습니다. 큰 기억들 속에는 많고 작은 기억들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전처럼 고통스럽지는 않았지만 가슴속의 눈물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수련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참회는 눈을 떠도, 대화를 해도, 밥을 먹어도 계속 되었습니다. 가슴속의 눈물은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선생님의 말씀은 한결 같았습니다.

“가서 계속하셔야 됩니다. 쉬었다 하시면 하 세월입니다.”

선생님과 뜨거운 포옹을 남긴 채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가슴의 눈물은 가끔 눈가에 눈물을 맺히게 만들었습니다.

“오빠 몸이 좀 안 좋아서 마중 나가지 못해 미안해.”

아내는 서울 처형 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점심은 먹었어?”

“오면서 빵 좀 사다 줄래?”

전철역에 내려 빵을 사들고 아내에게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내를 처음 만나러 갈 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기야!”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내도 나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니 얼굴이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

나도 모르게 눈가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너무 예뻐합니다.

마치며

수련을 하며 나오는 여러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들은 수련을 하면서 겪었던 마음입니다.

에고가 참나를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들을 이기지 못했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습니다.

일주일의 수련 후 저는 서울에서 다시 양평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글은 4월 15일 저녁에 적는 글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더 수련했습니다. 두 번째 수련에는 아내도 2박 3일간 다녀갔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갈등이 없어지자 벌어진 일들은 지금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온몸의 피부구멍이 열리고 따뜻하고 환한 빛이 온몸을 감싸며, 내 육신은 사라지고, 의식이 없어지자 더 이상의 기억은 없습니다. 훗날 두 번째 일주일에 대한 글을 올릴 수 있게 되기를… 